

미래 인재를 위한 ‘사회성’ 개념 및 구성요소의 재정립[†]: 사회성 함양을 위한 대학 교양무용수업

임수진* 서울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성 개념의 명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대학 교양무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내용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Stringer(1999)의 참여적 실험연구로 2022년 2학기과 2023년 1학기에 진행하였고, 1년간 서울 소재 S대학교의 교양강좌 학습자 총 3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래 인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기본 자질로서 사회성 개념은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사회성의 구성요소는 ‘사고에서의 사회성’, ‘사교성에서의 사회성’, ‘사회적 규범에 준거한 사회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성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성의 세부자질은 달라진다. 셋째, 사회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내포된 공통적 세부자질은 ‘존중, 소통, 배려, 격려’로 도출되었고, 이 중 핵심 요소는 ‘존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성 함양을 위한 기본 자질은 ‘존중’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양무용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고, 수업목표,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평가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에 현장의 교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어 : 사회성, 사고력, 사교성, 사회적 규범, 교양무용수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사회성 발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린 학생들은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서 ‘작은’ 사회를 본격적으로 경험한다. 학교는 전인 양성을 지향하면서 인간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김달효, 2010).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사회적응력을 키워가며 사회화(socialization)된다. 하지만,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다양한 특성과 개성을 지닌 개인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응력을 신장하고, 모범적으로 사회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의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성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성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언급하는 ‘사회성’ 개념은 사회성을 둘러싼 여러 양상 중 한 측면, 특히 관계성의 ‘친화력’에만 집중된 사교성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남경이, 1997). 사교성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용이하고 폭넓은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온전한 사회성은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높은 수준 및 자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교성은 긴밀한 인간관계보다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는 정도로, 사교성(social nature, social skill)과 사회성(sociability)에는 ‘관계성의 깊이’ 차이가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38204)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스포츠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suzie@snu.ac.kr

사전적 의미에서 사회성이란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 따위”를 의미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에 대한 해석이 그동안 간과되거나 축소된 경향이 있고,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어떠한 소질’과 ‘어떠한 능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친화적 능력이 강조된 ‘사회성’(social nature, social skill)이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회성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성 신장을 위한 사회성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사회성’ 용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소질과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는 ‘사회성’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무용교육에서 처음으로 ‘사회성’ 교육에 관심을 둔 인물은 미국의 무용교육자, 앤 길버트(Anne Green Gilbert)이다. 길버트는 무용을 통해 협동, 생각의 공유, 리더십 함양, 몸가짐 등의 사회적 태도 및 적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The Creative Dance Center>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신장을 위한 무용교육을 실천해왔다(임수진, 2015b; Gilbert, 1992). 길버트는 사회성 함양을 위해 ‘생각의 공유’를 강조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무용수업에서 학생들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 무용수업이 오롯이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임을 고려할 때, 당시 그녀의 무용수업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선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무용교육에서 사회성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심리적·정서적 상태와 교우관계에 방점을 두었으며,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론으로 이루어졌다(이건미, 2010; 원세정, 2013; 이진선, 2015; 최재희, 2013). 이후 임수진(2015a)의 댄스 리더러시 연구에서 광범위한 사회성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성 개념을 내적 측면(internal aspect)의 사회성과 외적 측면(external aspect)의 사회성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사회성 개념 연구이거나 사회성 관련 연구가 아니라 댄스 리더러시, 즉 무용소양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사회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무용소양에서의 사회성(sociality)을 내적·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내적 측면의 댄스 리더러시 사회성을 개인조절력(personal control ability)으로, 외적 측면의 댄스 리더러시 사회성을 대인관계력(interpersonal skills)으로 명명하였다.

21세기 IT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동안 우리는 3년 이상 비대면 생활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생활방식이 주는 이점으로 개인적인 편리함과 시간의 효율성이 있지만, ‘전인’, ‘사람다움’을 지향하는 교육의 관점에서는 비인간화, 사회성 결여, 교육의 불균형 등의 난제가 생겼고, 지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성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1세기 미래 인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기본 자질로서의 사회성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지는지를 탐색하여, 대학 교양무용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전통철학 및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성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둘째, 21세기 미래 인재를 위한 사회성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셋째, 사회성 교육을 위한 대학교양 무용수업의 내용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따른 실행연구로, Stringer(1999)의 참여적 실행연구로 진행하였고, 서울 소재 S대학교 2022년 2학기(20명)와 2023년 1학기(18명)에 대학교양 현대무용수업으로 총 두 학기 동안 이루어졌다. 2022년 2학기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 개념 및 특징을 분석하였고, 2023년 1학기에는 학습자들의 체험담을 통해 사회성의 구성요소 및 세부요소를 도출하였다. 모든 학습자는 수강 전 강의 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선택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징은 S대학교 1~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교양강좌 '현대무용' 즉 춤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모였다. 하지만, 그들의 춤 경험은 전혀 경험이 없는 '문외한'부터 댄스 동아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아마추어 댄서'까지 다양하였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개별 움직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플로워 움직임과 센터 움직임 학습 후 개별 연습 없이 기말시연을 위한 조별 활동 시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두 학기 동안 진행하였고 중간고사 전과 후, 학습자가 인지하는 사회성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여 사회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세부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설계

실행연구는 실천을 통한 현장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연구로, 실천에 대한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되는 실천지향적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13). Kemmis와 McTaggart(1988)에 의하면, 실행연구는 '더 나은 이해'와 '더 나은 실천'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한편, Orton(1992)에 따르면, 실행연구는 참가자들을 위한 학습 경험이 의도된 연구이다(김영천, 2013; 재인용).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본 연구는 2022년~2023년 두 학기에 걸쳐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 개념과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참여적 실행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 Stringer의 '보기(Look)-생각하기(Think)-행동하기(Act)'와 Kemmis와 McTaggart(1988)가 제안한 '계획하기-실행하기-관찰하기-반성하기'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교수자의 연구 과정에서, 후자는 학습자 지도 과정에서 활용하였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이론적·학술적으로 다루어지는 있는 사회성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성'에

서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회화’, ‘사교성’, ‘대인관계’ 등을 키워드로, 학술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실험연구의 자료로 성찰일지, 학습일지, 교수일지를 활용하였다. 다방면으로 해석되고 있는 사회성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성찰일지 및 학습일지 자료는 Moustakas(1994)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의 단계에 따라 수평화 단계, 의미군 형성, 구조적 기술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학습자들의 체험일지는 귀납적 범주 분석 절차에 따라 핵심어를 포착하면서 의미군별로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다면의 사회성 개념과 세 가지 구성요소를 근거로, 대학 교양무용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성 교육의 교수-학습지도안을 고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학습일지 및 교수일지 등을 활용하여 현장기록을 남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습자가 성찰일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학습자의 성찰일지와 학습일지 자료는 코딩과정을 거쳐 사회성 개념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성 개념의 재정립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양수업에서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은 어떠한 개념인지 살펴보고, 연구자의 수업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사회성 개념이 어떻게 재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성’ 개념 재정립을 위해 사회성 개념을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이론적 근거로, 철학적 관점을 전통적 관점으로,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현대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성의 본질적 개념을 분석한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본 연구는 현장연구로 진행하였고, 사회성 개념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1) 전통철학 및 사회심리학 관점에서의 사회성 의미

전통적 관점의 사회성 개념은 서양의 전통철학적 관점으로, 사회성의 어원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표현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제국의 정치인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물’이라는 본래의 표현을 사회적 동물로 변용한 것이다(채이병, 2006).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 동물로 표현을 바꾼 의도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박재호, 2014). 이와 같이, 전통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성은 ‘공동체에 어울릴 수 있는 소통 및 조율능력’을 의미한다.

현대적 관점 즉,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사회성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영역으로, 사회과학에 뿌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상황, 즉 사회적 상황 요인이 개인의 행동, 생각, 느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한규석, 2009). 사회심리학은 사회심리와 문화심리로 연구영역을 구분하여 인간의 사회적 관계, 집단 내 상호작용, 문화적 특성 등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한규석, 2009). 따라서,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사회성은 ‘사회화’, ‘사교성’,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먼저, 사회화(Socialization)는 “개인이 속한 문화와 하위문화에서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신념, 가치, 행동을 습득하는 과정(p. 663)”으로 정의된다(Shaffer, 2005). 관련 연구로, 상호작용의 효과성이나 반대로 반사

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을 다룬다. 이 때 한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행동을 학습해 가는 과정으로 '사회화'를 다룬다. 사교성은 친화력의 정도로 해석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나 방관자나 혼자 놀기와 같은 비사회적 행동(nonsocial behavior) 등을 연구한다(Shaffer, 2005).

두 관점을 정리해보면, 전통적 관점에서는 사회성을 '타인과의 소통능력 수준'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사회화와 친화력의 정도'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성의 포괄적인 개념만으로는 사회성 함양을 위한 본질적인 교육을 실천하기 힘들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을 단순히 사교성이나 붙임성 없다 정도로만 판단한다면 다층적(multilayered)이고 다면적(multifaceted)인 사회성 개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체육학 분야에서 사회성의 개념을 분석한 이태신(2000)은 사회성을 인간의 능력과 표현의 방식이 사회화(socialization)되고 있는 정도로 밝히고, 사회화 관점에서 '무엇'이 사회화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성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그의 제안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사회성을 '사고 및 판단에서의 사회성', '사교성으로서의 사회성',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회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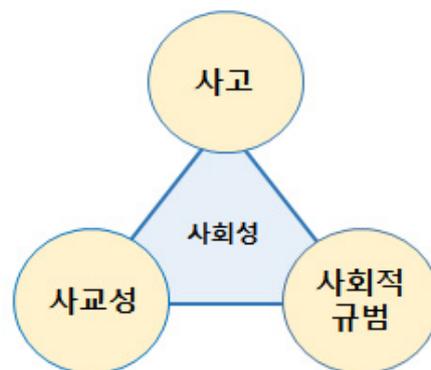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사고 및 판단에서의 사회성'은 사고 단계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교성으로서의 사회성'은 사회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사회적 행동이 많아질수록 사회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혼자 놀던 아이가 곁에 있는 사람과 같이 놀고 싶어 하듯이 상대방에 대한 흥미를 갖는 행동을 사회성 발달로 간주한다(Shaffer, 2005). 그런데, 사고와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성 발달과 피상적인 사회성 발달은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회성'은 사회성을 평가할 때 사고와 행동의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짝패 싸움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한 구성원을 따돌리는 행동은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한 개인이 어떠한 무리에 속해서 어울린다고 해도 이 경우는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받지 못한다.

정리해보면, 사회성(sociability)의 학술적 정의는 "사회적 성숙,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철학적 관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체육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사회성의 개념을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상정하고, 이 능력에는 '사고에서의 사회성', '사교성에서의 사회성', '사회적 규범에 준거한 사회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재정립하였다(그림 2 참조). 이렇게 사회성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회성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성의 세부자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성의 양상이 달라져도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사회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표 1.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의 개념 및 척도

N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 개념	사회성이 좋은 사람의 특징	사회성의 척도
1	순수한 관심, 민감한 인지, 적절한 표현	배려	친화력
2	내향적, 외향적, 경청, 진솔함	예의	내향적, 외향적
3	집단생활 성향, 사교성, 존중, 진지함, 편안함, 배려	배려, 공감	친화력
4	의사소통 원활,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력, 친밀도, 협업	친화력
5	대인관계의 원만성, 좋아하는 정도	사회성의 증거, 웃음	친화력
6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능력	자아 존중, 자기에, 자존감, 자신감, 섬세함	사고에서의 사회성
7	인간의 성장 능력	소통, 배려, 조율, 어울림	친화력
8	사고의 범위, 자기중심적, 타자 입장, 사회적 행동, 사회적 가치	중요하지 않은 내향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 편안함, 배려	내향적, 외향적 성격은 중요하지 않음
9	긍정적인 자아, 끈은 것, 편견 없는 행동과 말	긍정적 자아가 강한 것	사고에서의 사회성
10	어울림, 경청, 소통, 공감, 도움주기	공감, 긍정 반응, 편안함, 상냥함, 믿음직스러움, 존중, 성숙한 태도, 인상	친화력
11	타인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존중, 이해, 배려, 긍정적 수용적 태도, 어울림, 경청	사고에서의 사회성
12	사회화, 공동체 규범	공감, 공감지능(EQ), 경청	사고에서의 사회성
13	원만성, 관계, 인성	책임감, 융통성, 바른 언행, 관계 형성, 넓은 대인관계	사고에서의 사회성, 사회적 규범, 친화력
14	좋은 평판, 친화력, 편안한 대화, 공동생활, 관계	대인관계, 소통	친화력, 사고에서의 사회성
15	자신이 속한 문화 또는 집단에 스며들기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환경 적응력
16	사회성, 사교성, 공감, 호감, 경청, 공감,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 이타적, 겸손함, 웃음, 인내심, 자신감, 긍정적 마인드	상대의 니즈 파악, 역지사지의 마음--> 사고에서의 사회성
17	인간다움, 언행	변화되는 사회성, 예의와 공경	사회적 규범 및 기준
18	사회적 신호, 올바른 사회적 행위	사회성의 범위와 수준	적절한 언행
19	사회화되고 있는 정도, 공감, 사교적, 사회적 가치, 관용	'사회화'가 잘된 사람, 관계, 소통	사회화의 정도
20	상상력, 타인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 노력	타인의 세계를 인지, 역지사지	사고에서의 사회성

*2022년 2학기

2) 체화(體化)된 사회성의 개념

S대학교 2022년 2학기 교양무용 현대무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의 개념 및 특징을 과 같이 분석하였다(표 1 참조). 2022년 2학기에는 20명이 참여하였고, 중간고사 이전에는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의 개념을, 중간고사 이후에는 기말 창작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발휘한 사회성과 팀 리더의 사회성 특징을 각각 성찰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성찰 과정에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의 개념과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하면서 사회성의 기준 혹은 척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학습자들의 성찰일지는 수평화단계, 의미군 형성, 구조적 기술과정을 거쳐 <표 1>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학습자들의 성찰일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성과 관련된 핵심어로 관계, 상호작용, 원만함, 편안함, 친화력 등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 제안한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는 사회성 개념에 부합된 실제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2. 학습과 경험을 통한 사회성 구성요소

미래 인재가 지녀야 하는 사회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IT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이 개인적인 편리함과 시간의 효율성을 가져다주지만 이로 인해 비인간화, 사회성 결여, 교육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발전할수록 '사회성 교육'이 중요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사회성'을 둘러싼 공통적이거나 구분되는 내용을 맥락화하여 사회성의 구성요소 및 세부요소를 분석한 결과, '사고에서의 사회성', '사교성에서의 사회성', '사회적 규범에 준거한 사회성' 등 세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S대학교 2023년 1학기 현대무용 수강생을 대상으로 참여적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의 기말성찰일지는 다음 <표 2>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2. 학습자 성찰일지 작성을 위해 교수자가 공지한 질의 내용

N	질의 내용
Q1	본 강좌에서 체험한 사회성 요인은 무엇인가?
Q2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사회성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3	자신의 사회성 함양에 영향을 준 수업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Q4	조장으로서 현재 지닌 사회성과 부족한 사회성 요인은 무엇인가?

*2022년 2학기과 2023년 1학기 성찰일지를 위한 질의 내용

질의 내용은 학습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기말시연이 마무리된 이후에 공지하여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의식적으로 형성하지 못하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한 학기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습자들이 사회성과 관련하여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교양수업의 수강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성에서의 사회성이 아니었다. 연구결과,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사회성은 '사고에서의 사회성'이었다. 이로써 기성세대가 인지하는 사회성의 개념과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인지하는 사회성의 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기 연구 참여자 18명 중 14명이 '사고에서의 사회성'을 사회성의 핵심 요소로 인지하고 있었다(<표 3> 참조). 이는 지금의 세대를 위한 사회성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기존과 달라야 한다는 것과 미래 인재를 위한 사회성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 학습자의 체화된 사회성 세부요소 도출 과정

N	Q	Answer	Key words	Q	Answer	Key words
1		사고에서의 사회성 발휘	존중		사고에서의 사회성	
2		사고에서의 사회성	의사소통		사고에서의 사회성	
3		사회적 규범			친화적 사회성	
4		사고에서의 사회성	배려			배려
5			격려, 용기		사고에서의 사회성	
6	Q1	사고에서의 사회성	소통	Q2	사고에서의 사회성	타인 존중
7		사고에서의 사회성	아이디어 존중		사고에서의 사회성	
8		사고에서의 사회성	타인 존중		사고에서의 사회성	배려, 존중
9		사고에서의 사회성	사고의 유연함		사회적 규범	조정, 조율
10		사고에서의 사회성, 친화력으로서의 사회성	인간관계, 인사		친화적 사회성	왕따 및 따돌림 문제

N	Q	Answer	Key words	Q	Answer	Key words
11		사고에서의 사회성	존중, 소통		사고에서의 사회성	타인이해, 존중
12		사고에서의 사회성	존중, 웃음		사고에서의 사회성	공감
13		친화력으로서의 사회성	적극 호응, 파이팅 외침		친화적 사회성	협업
14		사고에서의 사회성, 친화력으로서의 사회성	소통, 친밀감, 선물, 독방		사회적 규범	상호작용, 소통
15		사고에서의 사회성	의견존중		친화적 사회성	생각존중
16		친화력으로서의 사회성(사고는 이미 정형화된 척도)	긍정, 존중, 격려		사고에서의 사회성	경청, 소통, 존중
17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회성 사고(안무창작과정),			사고에서의 사회성	존중
18		친화력(팀활동), 규범으로서의 사회성(부상자 참여) 발휘	수용, 외향성, 배려		- 사고에서의 사회성 (//////:6명)	소통, 존중, 인정
		- 종강 후 소통기회(///:3명) - 조별 기말 창작 프로젝트 (///:4명) - 창작안무활동(//////:6명) - 개별 스트레칭 (마음가짐, 인내심)	소통 기회, 배려, 춤보기			격려, 의견존중, 협력, 웃음, 편안함, 응원, 분위기 업(up), 힐러, 책임감
N (1~ 18)	Q3	- 교수자의 인내심, 리더십 - 가장 발전한 댄서 추천 - 학기 마무리 평가 롤링페이퍼 작성 동작 확장 과정(8박-16박) 오리지널 무브먼트 공유 기회(친화 력 발달 도모, 고정관념 탈피)	아이디어 공유, 타인 생각존중	Q4	- 친화력으로서의 사회성 (/////////:10명)	
			한계 극복, 새로운 도전, 의사소통			

*2023년 1학기(/ : 동일 의견을 강조한 N수를 의미함)

2023년 1학기 학습자들의 성찰일지에 나타난 사회성의 구성요소별 세부요소는 다음 <표 4>와 같다. 학습자들이 제안하는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N 수를 표시하기 위해 반복되는 단어를 임의로 배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술하였다. <표 4>를 분석한 결과, 사회성의 구성요소별 세부요소가 대동소이함을 나타낸다. 사회성의 구성요소별 다양한 세부요소는 '존중, 소통, 배려, 격려' 등으로 축약할 수 있고, 사회성 세 가지 구성요소의 공통 핵심어는 '존중'으로 확인되었다. 이때의 '존중'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 모두를 포함한다. 이로써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사회성의 기본 자질이고,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서는 '존중'을 수업주제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성의 세부요소별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학습자들의 목소리로 도출된 사회성 구성요소별 세부요소

사회성 구성요소	사회성의 세부요소	핵심어
사고에서의 사회성	존중, 의사소통, 배려, 격려, 용기, 소통, 아이디어 존중, 사고의 유연함, 인간관계, 타인 존중, 소통, 공감, 존중, 웃음, 의견존중 수용, 배려, 조정, 협업, 존중, 소통, 존중, 인정	존중, 소통, 배려, 격려
사고성에서의 사회성	인사, 긍정, 존중, 격려, 배려, 타인 이해, 존중, 재미, 편안함, 의사소통, 원만함, 밝은 웃음, 응원, 격려, 존중, 따뜻함, 책임감과 꼼꼼함	존중, 소통, 배려, 격려
사회적 규범에 준거한 사회성	왕따 및 따돌림 문제, 생각존중, 존중, 협력	존중

*2023년 1학기

3. 사회성 교육을 위한 교양무용 수업의 내용체계

사회성(sociality)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함양되는 것으로, 사회화(socialization)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년 시절에 사회성이 좋았다고 해서 사회성이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성은 '저절로' 길러지지 않고, 이미 길러진 사회성의 수준이나 정도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 이 때문에 인간의 성장 과정 및 단계에 따른 사회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 인재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 개념을 근거로, 대학교양 무용수업에서 참여적 실험연구를 실천한 결과, 사회성의 구성요소는 '사고에서의 사회성', '사교성에서의 사회성', '사회적 규범에 준거한 사회성'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구성요소의 세부요소는 '존중, 소통, 배려, 격려'이며 공통 핵심요소는 '존중'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자의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교양 무용강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성 교육의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5>과 같다.

이 교수-학습지도안에서는 한 학기의 수업목표, 학습목표,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평가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수업목표는 자신의 신체를 알고,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신체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현대무용 동작의 기본기 학습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사회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말 창작프로젝트를 팀으로 구성하여 작품을 안무하도록 지도하였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사회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인의 사회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매 차시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사회성 교육과 관련된 메시지로 수업 오프닝을 열고, 출석체크를 한 후 몸풀기를 진행한다. '전개 단계'는 Floor work, Center work, 창작작품 순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수업주제 및 수업 내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Center work에서 파트너 움직임 활동이나 일회성의 조별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 단계'에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 차시 Cool down 동작으로 움직임 활동을 마무리하였고, 기말시연 당일에는 팀별 작품 감상, 학기 동안의 본인의 변화, 기말시연 준비 과정의 경험 등 학습 소감을 공유하는 '1분 스피치'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본 연구자가 진행한 대학교양 현대무용 수업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 각 단계에서 '사회성'이라는 수업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연계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지도안을 고안하였다.

표 5.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지도안

교과목명	현대무용	수업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소	무용실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현대무용 동작을 빠르게 시연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충실히 다진다. 다양한 현대무용의 기본 동작 학습 후, 조별 창작작품을 안무하면서 자신의 사회성을 발휘하고 조직의 사회성을 탐색해본다.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용을 통한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사회성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회성을 능력을 신장시킨다. 차시별로 '존중', '소통', '배려', '격려' 등 키워드의 깊이와 넓이를 수업안에서 이해하고 체험한다.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몸풀기 (Warming up)	- 호흡 활용법(Inhale, Exhale, Pause) - 눕기, 앉기, 서기의 바른 자세 - 전신운동 및 코어 강화 운동		운동복	15분
전개	Floor work	- 발, 발목, 무릎 위밍업을 발전시킨 동작 시퀀스 - 고관절 가동범위 확장을 위한 동작 시퀀스 - 팔과 어깨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활용한 동작 시퀀스 - 구르기를 응용한 동작 시퀀스		or 무용복	20분

교과목명	현대무용	수업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소	무용실
	Center work	- 상·하체 강화를 위한 스탠딩 동작과 회전 동작 ex) Plié, Batttement tendus, Batttement jetes and piqués, Contraction & release, Grand battements, Walking, Walking with direction, various jumps, various tour movement			20분
	창작 작품	• 중간고사 이전: 교수자가 창작한 독무 작품 학습하기 • 중간고사 이후: - 라반의 에포트 이론(시간, 공간, 무게, 흐름)을 활용한 개별 즉흥 동작 창작하기, 확장하기, 당일 선정된 움직임을 위한 키워드로 일회성 군무 작품 만들기(2~3주간 지도) - 팀원들의 아이디어로 작품 만들기		음악, 작품 소품, 작품 의상	30분
정리	상시 기말시연 이후	- Cool down 동작으로 움직임 학습 마무리 - 특별 작품 감상, 학기 동안의 변화, 기말시연 경험 등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기			10분

* 평가는 교수자 평가와 학습자 간 평가 두 가지로 진행함. 학습자 간 평가는 기말시연 이후 팀원 간의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를 참작하여 교수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기 위함.

- 중간고사 이전: 출석, 수업 태도, 참여도의 적극성, 중간과제(학습자의 학기 초 실력을 파악한다. 학기 초 춤기
량이 뛰어나더라도 학기 말에 변화가 없으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학기 춤기량이 부진하더라도
학기 말에 큰 변화가 있다면 좋은 성적을 부여함)
- 중간고사 이후: 출석, 수업태도, 팀작품 참여도의 적극성, 기말시연, 기말과제(성찰일지)

표 3. 학습자 성찰일지 작성을 위해 교수자가 공지한 질의 내용

평가	N	질의 내용
	Q1	본 강좌에서 체험한 사회성 요인은 무엇인가?
	Q2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사회성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3	자신의 사회성 함양에 영향을 준 수업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Q4	조장으로서 현재 지닌 사회성과 부족한 사회성 요인은 무엇인가?

*2022년 2학기과 2023년 1학기 성찰일지를 위한 질의 내용

- 동료평가: 기말창작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팀원들의 참여도 및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기말시연 이후 당일에 기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예. Post-it을 활용한 개인평가)을 추천함

* 2022~2023년 실행연구에 활용한 교수-학습지도안

IV. 논의

본 연구결과에서는 전통철학과 사회심리학 관점이 통합된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사회성을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이에,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사회성 개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경험치를 분석하여 사회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성’이라는 용어는 한 측면으로만 해석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최정원, 2022). 사교성, 대인관계 능력 등 관계성의 ‘친화력’에 편중된 사회성 개념만으로는 사회성의 다차원적 의미를 담을 수 없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성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경향 또는 개인이 환경에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정갑순, 1980; 임태희, 2009). 특히, 체육이나 무용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성 개념에 대

한 구체적인 해석보다는 어떠한 운동 종목이나 무용수업이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수업의 효과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을 재개념화하기 위해서 학문적·철학적 측면의 사회성 개념과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인지하는 사회성 개념을 종합하여 사회성 개념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21세기 미래 인재의 사회성 정도와 수준을 면밀하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힌 사회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미래 인재들이 지녀야 하는 핵심 자질은 무엇인가?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질이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답하기 힘들다(최정원, 2022). 인재 양성을 위한 기존 교육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강조하였지만, 21세기 미래 인재에게는 전문성과 창의성, 소통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융합능력을 요구한다. 이에 미래 인재는 자신의 전문성을 뛰어넘어 타 영역의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은 젊은 세대에게 여러 영역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하는 바쁜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 어우러져 협업하고 공동의 성과를 일궈 내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개인의 성과와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은 타인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성 발달 기회를 감소시킨다. 또한,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자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자는 결국 공동 사회에서 고립되어 조화롭게 살아가기 힘들다(최정원, 2022). 따라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자질은 '존중'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 교양에서 사회성 교육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대학에서는 예로부터 전문인과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전인 양성을 지향한다(임수진, 2022). 21세기 대학은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창의융합역량, 전문역량, 소통역량, 협업역량, 혁신역량 등을 강조하였다(조남민 외, 2021). 이처럼, 어떠한 결과치를 증명해야 하는 역량기반의 교육에서 사회성, 인성, 도덕성과 같은 인간의 기본 자질을 함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스포츠에서의 환경은 관계성, 사회성, 친사회적 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임태희, 2009). 그런데 체육학과 무용학의 사회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를 통해 운동이나 군무 혹은 창작이 친화력, 자신감, 표현력, 리더십, 협동심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혀왔다(김상진, 2003; 정인영, 2004; 이정화 외,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성을 '사고에서의 사회성', '사교성으로서의 사회성',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회성' 등 세 가지 구성요소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고에서의 사회성'과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래 인재의 사회성 교육을 위해 사회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모색하고 대학 교양무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내용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참여적 실험연구(Stringer, 1999)를 진행하였고,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성 개념의 명제적 지식과 체화된 지식을 분석하였다. 2022년 2학기과 2023년 1학기에 서울 소재 S대학교의 교양강좌 학습자 총 3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수자의 연구 과정에서는 Stringer의 '보기(Look)-생각하기(Think)-행동하기(Act)'를 활용하였고, 학습자의 지도 과정에서는 Kemmis와 McTaggart(1988)가 제안한 '계획하기-실행하기-관찰하기-반성하기'를 활용하여 교수일지, 성찰일지, 학습일지를 실험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래 인재가 인지해야 하는 사회성 개념은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

다. 둘째, 사회성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성의 세부자질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성의 구성요소는 '사고에서의 사회성,' '사교성에서의 사회성,' '사회적 규범에 준거한 사회성'으로 구분된다. 셋째, 사회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내포된 공통적 세부자질은 '존중, 소통, 배려, 격려'이고, 이 중 핵심 요소는 '존중'으로, 이것이 사회성 함양을 위한 기본 자질임을 확인하였다. 다차원적인 사회성의 속성은 하나의 표준이나 단일화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회성의 핵심 자질을 안다면, 사회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재를 위한 '사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성'의 전반적인 의미와 내용을 전통철학적, 사회심리학적, 체육학적 관점을 종합하고 교육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성의 구성요소 및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양무용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지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사회성 신장을 위한 교양무용 교수-학습방법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활용된다면, 교수자의 교수-학습방법 실천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학습자들에게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사회성의 발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회성의 개념, 구성요소 및 핵심요소,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고안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 및 효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사회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후속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성의 구성요소별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여야 한다. 셋째, 무용장르별 교양수업에서 사회성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학술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현장 교수자들의 교수 전문성을 높여주고 사회성 교육을 위한 교양무용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달효(2010). 사회성 측정(sociometry)을 활용한 학생의 사회성 개선 효과 검증. *수산해양교육연구*, 22(4), 633-646.
- 김상건(2003). **재량활동 태권도 수업이 교우관계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스포츠 대학원.
- 김영천(2015). **질적연구방법론 II**. 아카데미프레스.
- 김지영(2008). 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4(2), pp. 1-20.
- 남경이(1997). **무용교육을 통한 사회성의 가치 확립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재호(2014). **인간, 사회적 동물: 사회심리학에 관한 모든 것**. 탐구당
- 손수민, 강운정(2018). GI협동학습모형을 적용한 미술감상수업이 미술자아개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안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3(4), pp. 123-155.
- 심경일(2004). **독서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개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 원세정(2013). 중학생의 학교 무용수업 참여경험이 자신감과 사회성 및 자아실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0(3), pp. 47-65.
- 이건미(2010). 초등학생의 방과후 무용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2, 119-133.
- 이명희(2005).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화, 이한주(2013). **고등학생들의 사회, 정서 학습(SEL)을 위한 표현활동 무용수업 적용 및 개선방안**.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1(3), pp. 91-116.
- 이진선(2015). 초등학생의 무용 활동 참여가 사회성,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15(1), pp. 39-48.
- 이태신(2000).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 임수진(2015a).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수진(2015b). 댄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3), 123-145.
- 임수진(2022).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위한 교양무용 콘텐츠 개발: 메디치 가(家)와 공자에게 배우는 창의력과 리더십. *한국무용과학회지*, 39(1), 43-58.
- 임태희(2009). 태권도 수련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변화. *체육과학연구*, 20(2), 387-399.
- 정갑순(1980). *포레집단에서의 어린이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인영(2004).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유무에 따른 사회성 및 리더십 차이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조남민, 손달임, 황미경(2021). 역량기반교육과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세션 4-2), 273-289
- 조영훈, 윤인애(2020).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중학생들의 자아개념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1), pp. 93-109.
- 채이병(2006). 사회성과 반사회성 사이의 갈등: 칸트의 역사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vol(12). pp. 217-240.
- 최정원(2022). *코로나 19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2-기본 03.
- 최재희(2013). 초등무용수업 참여만족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5(6). pp. 133-163.
- 한규석(2009년).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Berk, L. E. (2007).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Gilbert, A. G. (1992). *Creative Dance for all ages*. SHAPE.
- Kemmis, S., & McTaggart, R.(1988). *The Action Research Planner*. Deakin University.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Shaffer, D. R. (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anada: Cengage Learning. 송길연, 이지연(역)(2008). *사회성 격발달*. 서울: 세계이저러닝코리아.
- Stringer(2004). *Action Research in Education*. Pearson Education.

ABSTRACT

Redefining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Sociality’ for Future Talents: University Liberal Arts Dance Classes for Fostering Sociality[†]

Suj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build a teaching-learning methods content system for fostering sociality that can be utilized in liberal arts dance classes at university by analyzing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sociality recognized by learners based on the propositional knowledge of the concept of sociality. This research method was Stringer’s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1999), and was conduct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2 and the first semester of 2023. A total of 38 liberal arts course learners at S university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sociality as a basic quality that future talents must have was defined as the ‘ability to interact smoothly with others’. Second, the components of sociality were classified into ‘sociality in thinking’, ‘sociality in sociability’, and ‘sociality based on social norms’. The detailed qualities of sociality required vary depending on the context surrounding socialit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mon detailed qualities included in the three components of sociality were derived as ‘respect, communication, consideration, and encouragement’, and the common core element was ‘respect’. Based on these findings, a teaching-learning guidance plan that can be applied to liberal arts education to foster sociality was presented, and instructional goals, learning goals, learning contents, teaching-learning activities, and evaluation methods were presented in detail, which will be of practical help to instructors in the field.

Key words : sociality, thinking ability, sociability, social norms, liberal arts dance classes

논문투고일: 2024.09.21

논문심사일: 2024.10.10

심사완료일: 2024.10.10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B5A17038204)

* Research Professor, College of Education, Institute of Sport and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